

# Living the Lotus 4

*Buddhism in Everyday Life*

2025  
VOL. 235



Risho Kosei-kai of Brazil

Living the Lotus  
Vol. 235 (April 2025)

발행: 입정교성회 국제전도부

〒166-8537

동경 스기나미구 와다 2-7-1 후몬메디아센터3층

Tel: 03-5341-1124 / Fax: 03-5341-1224

E-mail: [iiving.the.lotus.rk-international@](mailto:i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

[kosei-kai.or.jp](http://kosei-kai.or.jp)

편집 책임자: 아카가와 케이치

편집장: 미카와 사치 / 교열자: 이행자, 성숙희, 박현철

입정교성회는, 1938년 니와노닛교 개조님과 나가누마 묘교 협조님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범화 삼부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재가불교 교단입니다.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 속에서 석존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에는 니와노 니치코 회장선생님과 함께 우리들 회원은, 불교도로서 포교 전도에 힘쓰면서 종교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국내외에서 여러 평화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Living the Lotus-Buddhism in Everyday Life(범화경을 살아 간다~생활 속 불교)라는 타이틀에는,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범화경 가르침을 실천하여, 진흙탕물에 피는 아름다운 연꽃과 같이, 인생을 풍요롭고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 잡지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매일매일의 생활속에서 활용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 믿고, 우리러본다는 것

입정교성회 회장  
나와노 니치코(庭野日鑛)

### ‘신앙’이란

석존께서 태어나신 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만, 일본에서는 주로 양력 4월8일에 석존의 탄생을 축하하는 법회를 개최합니다.

‘태어난 날은 나도 작은 불생회(佛生會) (모리 스미오(森澄雄:1919-2010) 라는 구절의 ‘불생회’ 역시 관불회(灌佛會)나 꽃 축제, 강탄회(降誕會)와 같은 석존의 탄생을 축하하는 법회를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그날 사찰에서 꽃으로 장식한 작은 탄생불에 감차(甘茶)를 부었을 때, 자신의 탄생과 어린 석존의 모습이 겹쳐져서 문득 ‘나 또한 석존과 똑같은 고귀한 생명을 받고 있구나’하고 깨달은 감회가 되살아납니다.

석존의 <탄생계(誕生偈)>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에 명시된 대로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고귀함을 마음 속 깊이 음미하고 그 감사함을 느끼며’라는 안심감과 함께, ‘부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항상 통하고 호흡하고 있다’는 심정이 되는 것이 ‘신심(信心)’이라고 개조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석가탄신일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타(自他)의 생명의 고귀함을 되새기고, 그 감사함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또한 개조님께서서는 ‘진실한 인간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생활과 정신,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이며 신앙이라는 의미로, 그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자신의 생명의 고귀함과 인간으로 태어난 고마움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석존 탄생으로부터 7일 후에 생모·마야(摩耶)부인이 돌아가십니다만, 이것으로 상징되는 생로병사 등,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진리(무상(無常)) 와, 모든 현상은 인(因)과 연(緣)의 작용에 의한 상관관계에 있다(무아(無我)·공(空))고 하는 진리를 똑똑히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여서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진실한 인간의 삶의 자세’입니다.

즉 신불의 가르침에서 이러한 삶의 방식을 배워 나를 성장시키는 고귀한 지침으로 믿고 우러러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며, 그 창조적 실천의 하나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하는 보살행입니다.

### 시대의 변화에 현혹되지 말고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신앙을 가진 어떤 분이 가족들과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딸에게 “젊은 사람들이 왜 이리 아무렇지도 않게 강도나 살인에 손을 대는 걸까?”하고 묻자, 딸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의해 자타의 생명의 고귀함을 깨닫고 자신의 힘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면, 누구나가 지니고 있는 배려심이나 남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 이러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겠다고 하는 ‘삶의 의지’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 그러한 감성이 ‘신앙이 있는 가정’이라는 ‘못자리’에서 자란 딸의 말에 자연스럽게 배어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만 있으면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거나 신앙을 하면 빈곤이나 병고(病苦)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고귀한 가르침 = 종교를 믿고 우러러보는 생활 속에서, 우리들은 많은 배움을 얻고 인간으로서의 향상을 지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 종교나 신앙에 대한 세간의 견해는 엄격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슴 깊은 곳에는 반드시 인생의 의지처로서 믿을 수 있는 가르침을 알고 싶다, 배우고 싶다, 그리고 성장하고 싶다고 희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미 종교의 ‘신앙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식에 서면, 지금 중요한 것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우리들이 불도의 근본인 철저한 자비와 배려의 마음으로 사람들과 연을 맺고, 만일의 경우에 마음의 의지처가 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안심감이 있으면 원래부터 신앙심을 품고 있는 누구나가 저절로 ‘진실한 삶’으로 인도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성』 2024년4월호)



# Interview

나의 고(苦)를 성장의 양식으로 삼아,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온 힘을 다 쏟고 싶어요

입정교성회 하와이 교회 손 리처즈(Shawn Richards)

## 입정교성회에는 언제, 어떤 계기로 입회하셨습니까?

2017년1월, 47세의 어느 날, 저는 직장 동료이며 입정교성회 하와이 교회의 지부장을 하고 있던 카렌 후지이 지부장님의 인도로 입정교성회에 입회를 하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몇 년 전부터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진학은 하였지만 과도한 음주로 중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도,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없을 정도로 음주량은 늘어나면서 술로 인해 몇 번이나 직장을 옮겨 다니기를 반복하였습니다.

2007년, 의사로부터 알코올성 간염 진단을 받고, 음주를 그만두지 않으면 간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저는 음주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저는 입정교성회에 입회를 한 후, 술에 빠져 살던 생활을 바꾸기 위해 입정교성회 하와이 교회에서 근본불교와 법화경을 배우고, 적극적으로 도량 당번에 참가하거나, 도량 행사 준비 등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수행과 교성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아주 기뻐했으며, 승가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기쁨을 실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알코올을 입에 대지 않는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코올 의존증에는, 음주를 잠시 그만두더라도 다시 술을 마시며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버리는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저 또한 2018년 4월, 아주 약간 마음이 해이해지며 수개월동안 그만두었던 알코올을 다시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윽고 일을 하는 도중에도 술을 마실 정도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 후, 로라·메야 교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승가 분들의 진심 어린 도움과 마음, 격려를 받으면서 알코올 의존증의 자가 도움집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서로의 체험담을 나누며, 회복을 위한 12단계를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의 12월, 드디어 저는 30년 이상을 앓아온 알코올 의존 생활을 탈피하여, 단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같은 이유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되도록리(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곳에서 성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메야 교회장님으로부터 “약물 의존증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크리스라는 청년에게 힘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의존증의 고통, 회복하기까지의 고통은 저 또한 체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비심을 가지고 다가가 크리스의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 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 도량에서 몇 번이나 얼굴을 마주하며 그의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과거 알코올 의존증이었던 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크리스가 회복하기를 기원함과 동시에, 고립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한



손 리처즈씨

밤중이든 아침 일찍 이든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해!” 라고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크리스의 옆에 있겠다는 안심감을 주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크리스와 함께 약물의존증 자가 도움집단에도 함께 갔었습니다. 크리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이전의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저는 부모님을 비롯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쳐온 나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고는 성장의 씨앗’이라고 배웠습니다. 긴 시간의존증으로 인해 괴로웠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데 입정교성회 가르침 덕분에 제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계십니까?

2024년6월에 전미영어간부교육이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전에 법화경 세미나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료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법화경 세미나에 참가했던 2018년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괴로워했던 시기로, 저는 항상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으며, 행복도 느끼지 못하고 몇 번이나 교성회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후인 간부교육 첫날, 독경공양때 도사 역할을 받았습니다. 역할을 하면서 당시의 제 자신의 모습이



2024년10월27일, 대성당에서 열린 교사수여식 후에 함께 교사자격을 수여받은 해외 교성회 수여자와 함께(마지막줄 왼쪽에서 두번째)



전미영어간부교육때 독경공양 도사 역할을 하는 리처즈씨

플래시백 하듯이 되살아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법화경 가르침과 승가분들의 진심어린 지원과 보살핌, 격려 덕분에 제가 성장하여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알코올 의존이라는 고(苦) 덕분에 신앙심이 깊어 졌으며, 고난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걱정을 하기보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풍요롭고 충실한 인생을 걸어가기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 2024년10월에 교사자격을 수여받았지만, 지금 마음이 어떻게세요?

지금, 제 마음 속은 기쁨과 자긍심, 그리고 겸손함으로 가득합니다. 교사자격 수여는, 제 수행의 새로운 시작이며,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여러 고(苦)에서 해방되어 다시한번 저의 불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법화경 가르침 중에 마음에 두고 있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법화경 화성유품의 ‘화성보처의 비유’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보물의 성으로 향하는 여행자들이 길고 험한 길을 걷다가 지쳐버려서, 한 리더가 환상의 성을 나타내어 그들을 쉬게 해주고 격려를 해주면서, 이윽고 보물의 성으로 인도한다는 내용이 설해져 있습니다. 이 비유

는 지금까지의 제 인생과 겹쳐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메야 교회장님을 비롯한 교성회의 리더분들이, 저를 격려하면서 여러가지 방안을 써서 진실의 길로 인도해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 입정교성회의 어떤 부분에 매력을 느끼십니까?

‘회원강령’에 가장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원강령’에는 개인의 인격완성과 함께, 그 연장선으로 가정·사회·국가·세계의 평화경 건설을 위해서 보살행을 실천한다는 우리들 회원의 수행 목적과 규범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정교성회가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서 국제적인 종교대화와 종교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 또한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바람과, 앞으로의 수행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의 가장 큰 바람이고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제받는 범화경 가르침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회원들 간의 관계를 보다 견고하게 해서, 지금 구제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승가로 맞이할 수 있도록 포교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역할도 모두 저의 성장에 필요한 역할이라고 믿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겠다고 결의 합니다.



부인인 키나씨와 조카와 함께



싫은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

좋고 싫음은 「자신의 제멋대로인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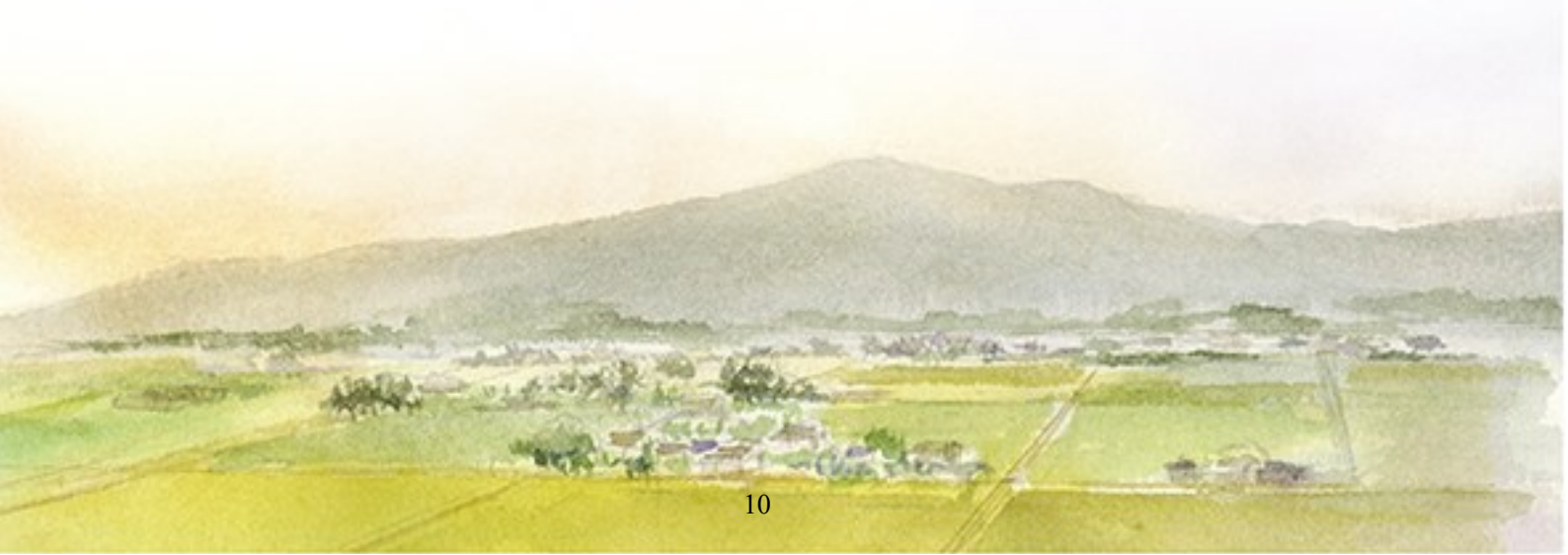
입정교성회 개조님 니와노닛쿄(庭野日敬)



이 봄, 취직이나 자리 이동 등으로 새로운 곳에 들어가 3개월 남짓 지난 지금쯤엔 상사와 동료와의 인간관계에서 좋고 싫음이 생기는 무렵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좋은 것은 괜찮지만 싫은 사람이 생기면 굉장히 힘듭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싫다」 「이 사람이 싫다」고 하고 있으면 그만큼 세상이 좁아집니다. 그러므로 싫은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과 싫은 사람도 좋아지도록 하는 궁리가 필요해집니다. 좋다 싫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이므로 그것을 뒤집는 것은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이 의외로 바꾸기 쉽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철을 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나무를 알루미늄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에 비해 마음이라는 것은 실로 유동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싫은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게 될까요. 여기에는 크게 나누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좋다 싫다에는 「자신의 제멋대로인 마음」이라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엄하게 말을 하는 사람은 싫은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쉽지만 그 엄한 말이 자신이 깨닫지 못한 결점과 단점을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노력을 한다. 그렇게 하여 자기 자신이 달라지면 저절로 상대방도 바뀌어갑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만이라는 회원을 접한 경험에서 확실히 보증할 수 있습니다.

니와노 닛쿄 범화집 『보리의 싹을 트게 함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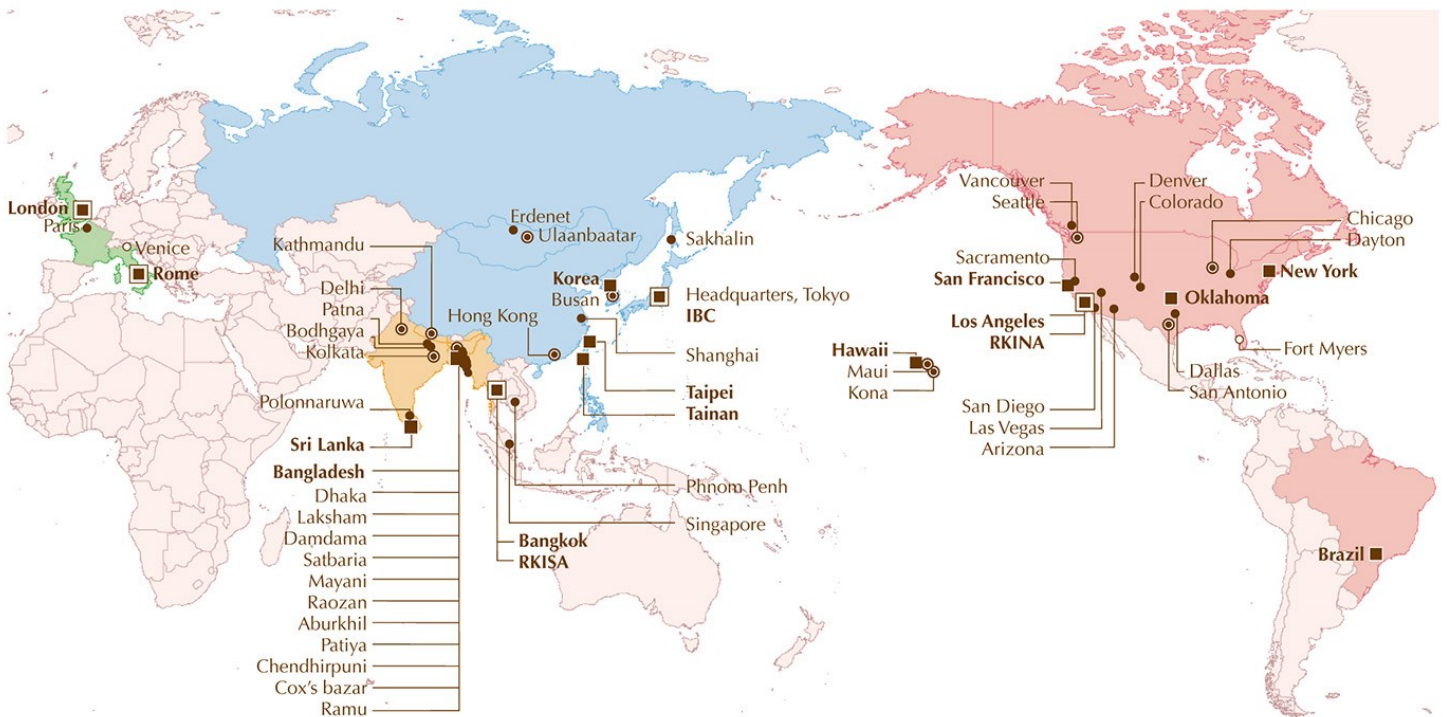


# Rissho Kosei-kai International

Make Every Encounter Matter



## 🌸 A Global Buddhist Movement 🌸



Information about local Dharma centers



facebook



X



✉ We welcome comments on our newsletter Living the Lotus: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mailto: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